

'에이즈 차단' 바르는 약 개발

성행위를 통한 에이즈바이러스(HIV)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신물질이 개발되고 있다.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 마이클 레더먼 박사팀이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 내용이다. 신물질은 RANTES라는 면역체계 분자를 수천배 강화한 합성 RANTES다.

이것이 HIV의 질(膜) 내 침투를 차단하는 현상이 동물실험에서 확인됐다.

레더먼 박사팀은 암컷 원숭이들에게 특수한 호르몬을 주입, HIV에 감염되기 쉽게 만들었다.

이후 원숭이 질 내에 강도가 다른 합성 RANTES를 뿌린 뒤 15분 후 에이즈바이러스를 넣었다.

그 결과 고단위 합성 RANTES가 뿌려진 원숭이들은 한 마리도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으며 그보다 약하게 뿌려진 경우도 80%는 전염되지 않았다.

이는 RANTES가 에이즈바이러스를 차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레더먼 박사팀은 섹스 전에 사용하는 연고나 젤 형태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4년 10월 15일〉

감염 우려, 최소한 입영 한 달 뒤에 헌혈해야

훈련소 장병들이 입소한 뒤 2, 3일 안에 하는 헌혈의 경우 에이즈 바이러스 등에 대한 감염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은 11일 에이즈 바이러

스는 감염된 지 11일, B형간염은 24일, C형간염은 30일이 지나야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지만 군 입대 직전 성관계 등을 갖는 경우 입소 직후 헌혈을 하게 되면 에이즈 바이러스 등의 감염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2년 12월 24일에는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한 사병이 헌혈한 피가 에이즈 양성판정을 받아 60대 2명에게 수혈돼 2명 모두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기우 의원은 입대 장병들은 입소한 뒤 최소한 한 달 이상 지나서 헌혈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군 입대 직후 헌혈을 하는 관행을 고치고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2004년 10월 11일〉

콘돔광고 10월 한 달간 실시

콘돔사용 홍보물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 방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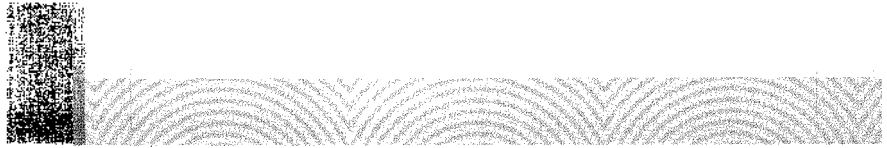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HIV감염인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지상파 방송을 통한 콘돔사용 촉진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에이즈퇴치연맹과 함께 방송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콘돔사용을 홍보한다는 내용으로, 10월 1일부터 1개월간 실시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소에 콘돔을 비치하여 누구나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의협신문 2004년 10월 4일〉

중국산 콘돔 대부분 불량

중국에서 팔리고 있는 콘돔은 대부분 불량품으로 피임을 하거나 에이즈, 성병 등을 예방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



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만의 중국시보와 방송에 따르면 중국에서 현재 팔리고 있는 콘돔 브랜드는 2000여종이지만 국가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불과 11개 브랜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올 8월부터 콘돔에 대해 강제 안전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안전인증 증서를 받지 못했거나 안전인증 표지를 제품 상에 부착하지 않은 콘돔 브랜드는 팔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나 여전히 널리 유통 중이다.

〈매일경제신문 2004월 10월 1일〉

이후 연평균 35%씩 증가하고 있는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성매개 질환의 전파를 막기 위해 홍보 전문가를 채용, 광고와 홍보를 강화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전국 각지에 상담소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내년에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담소 사업의 목표는 동성애자 등 에이즈 고위험군과 검진 희망자들이 종합적인 상담과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상담소는 게이 바(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술집) 밀집지역인 서울과 일반인 이동이 많은 역 주변에 주로 설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04년 9월 29일〉

35~49세 에이즈 '최다'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대는 35세부터 49세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에이즈 환자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에이즈 환자는 총 302명으로 연령대별로는 35~49세가 4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25~29세가 46명, 30~34세, 40~44세가 각각 45명으로 드러났으며 65세 이상도 10명이나 됐다. 15~19세는 4명. 한편 성별로는 남성(278명)이 여성(24명)보다 11배 이상 많았으며 감염 원인은 이성간 성접촉(81명), 동성간 성접촉(74명) 순이다. 〈일간스포츠 2004년 9월 30일〉

보건당국, 성병·에이즈 홍보 강화

보건당국이 성병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대한 홍보, 예방, 상담 작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29일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2000년

에이즈 76% 감염확인 5년내 사망

국내 에이즈 환자 중 76.6%가 감염확인 뒤 5년 이내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가 한나라당 정희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6년부터 올 6월까지 에이즈 감염확인 총인원 2842명 중 565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에이즈에 따른 질병사망이 395명(69.9%)이고 사고사 등 기타 사망이 134명(23.7%), 에이즈 감염에 따른 비관성 자살이 36명(6.4%)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망한 에이즈 환자 중 감염확인 뒤 기간별 사망 현황을 보면 1년 미만이 281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인 49.8%를 차지했다.

이어 1~2년 57명(10.1%), 2~3년 37명(6.5%), 3~5년 58명(10.2%), 5년 이상 132명(23.4%)으로 나타나 5년 이내 사망자가 433명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사망자의 76.6%에 이른다.

또 감염경로 유형별 사망자는 이성간 성접촉이 절반이



남. 말. 풀. 이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남은 52.6%에 해당하는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성간 성 접촉 90명(15.9%), 혈액 직접 감염 15명(2.6%)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감염경로(원인)를 알지 못한 사망자도 27.4%나 돼 국민들의 에이즈 인식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화원 의원은 "국민의 단일한 인식도 문제지만 에이즈 예방과 보호자 대책을 심의하기 위한 에이즈대책위원회가 지난 2000~2003년 4년 동안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국의 에이즈환자 관리실태도 매우 허술하다"며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파이낸셜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 본격시행

경찰은 성매매 압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성매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23일부터 한 달간 성매매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자정을 기해 전국 일선 경찰서별로 성매매 단속 특별반 1~3개반을 투입해 성매매 행위를 광범위하게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미아리 텍사스', '청량리 588' 등 집창촌을 비롯해 룬살롱과 단란주점, 휴게텔, 성인 전화방, 출장마사지, 보도방, 퇴폐이발소, 안마시술소 등 유흥 퇴폐업소에 대해서 적극 단속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되는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성매매 특별법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성매매수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입건키로 했다.

〈스포츠투데이 2004년 9월 23일〉

가로열쇠

①구세주라는 뜻의 현열의 오르토리오 ③예수와 열두제자의 마지막 식사를 그린 다빈치의 그림. ⑥일체가 아닌 명평한 표면. ⑦암장서 실행하여 모범을 보여야. ⑧고전음악에서 악곡의 도입부 역할을 하는 곡. ⑩이하에서 솟아나온 뜨거운 물에 목욕을... ⑫다 할 나위없이 아름다운 경치. ⑬달나라 갈 때 이것을 타고. ⑮이전의 잘못을 뉘우침. ⑯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 만들어 세우죠. ⑰사람이나 사물들 사이에 서로 맺어지는 관계. ⑱행사 전날밤에 가지는 축제. ⑳인디언 부족의 우두머리. ㉑명절 등을 앞두고 가장 요긴한 때. ㉒소오공 자팔계가 동창하는 중국대 하소설. ㉓아리하나나 대마초처럼 중독성이 있는... ㉔위로 하늘을 공격하고 아래로 사람을 시달리고. ㉕민중의 지혜가 응축되어 널리 구전되는 민간 격언.

세로열쇠

②대륙풍 석유 탐사선. ③암사로 수면상태에 빠지게... ④인간생활의 필수 요소인 세 가지. ⑤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 ⑥뛰어나거나 색다르지 않고 그저 보통. ⑦신라 때의 유명한 화가. ⑧추우면 키가 작아지고 더우면 키가 커져요. ⑨어떤 기후 조건에도 구애없이 활용 가능(~농업). ⑩특정한 사연이나 내용(우여...) ⑪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것이 경제의 원래 말. ⑫송배의 대상으로 삼기는 것. ⑬이 꽃은 잎 대신 가지가... ⑭놀이동산에서 즐겨 타죠. ⑮아리저리 몹시 바쁘게 뛰어다니는... ⑯교황선거권을 가진 가톨릭 교회의 고위 성직자. ⑰어느 한 쪽만을 치우치게 사랑. ⑱하겠다고 하고서 지키지 않으면 하나마나.

지난호 정답

홍	정	호	루	마	의	태	자
두	구				망		이
사	사	벌	신	국	조		인
미	립	자	벌	리	스		트
		루	전	봉	어		
도	트	리	스	왕	분		이
루	기	에	이	스	치		산
마	보	록	왕	비			가
리	벤	트		누	드		죽

AIDS 게시판

● 제7회 에이즈 국제 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에이즈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에이즈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심도 높은 토론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에이즈 정책 개선을 도모하고자 질병관리본부, UNDP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7회 에이즈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 일시 및 장소

- ~ 2004년 11월 11일(목) 9:30~17:00
- ~ 질병관리본부 대강당

■ 후원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 교육프로그램

개회식 및 축하인사

- ▶ Key Notes 좌장 : 조해월 원장(질병관리본부)
- ~ 한국의 HIV/AIDS 현황 및 관리정책 이덕형 부장(질병관리본부)
- ~ HIV/AIDS의 영향 Sonam Yangcheon Rana(UNDP)

HIV/AIDS 심포지엄

- ▶ 좌장 : 최강원 교수(서울대 감염내과)
- ~ 한국에서 HIV/AIDS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 양봉민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장)
- ~ 패널토의 : 정영호, 김광기, 홍성철, DeLancy

- ▶ 좌장 : 앤 이시벨(UNDP)
- ~ 한국에서 HIV/AIDS로 인한 사회적 영향 조병희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 ~ 패널토의 : 홍순구, 허태범, 안종주, Geeta

- ▶ 좌장 : 김준명 교수(연세대 감염내과)
- ~ HIV/AIDS에 대한 성(gender) 및 청소년 교육 손애리 교수(삼육대 보건대학원)
- ~ 패널토의 : 신영호, 권관우, 한채윤, Sonam

- ▶ 좌장 : 이주실 부장(질병관리본부)
- ~ HIV/AIDS 관리와 정책을 위한 제언 : 박윤형 교수(순천향대)
- ~ HIV/AIDS 관리와 정책을 위한 제언 II Geeta Sethi(UNAIDS)

■ 문의처 : 질병관리본부 기미경 연구관
(02)380-1516

● HIV/AIDS 치료기관 진단 및 치료 표준화 교육

감염인구가 증가하면서 HIV/AIDS 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에이즈 감염자·환자의 진료가 서울의 몇몇 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 임상 사례의 축적과 연구에 지역별, 시기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지속될 경우 전국에 분포해있는 HIV 감염인에 대한 치료와 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강영학회와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공동 주관으로 전국 종합병원의 (감염내과 전문의 및 관련 분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HIV/AIDS 진단 및 치료 표준화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HIV/AIDS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 2004년 11월 16일(화) 13:30~20:00 (단, 18:35~관찬)
- ~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그랜드볼 룸)

■ 주관 : 대한감염학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 후원 : 질병관리본부

■ 교육프로그램

- 13:30~14:00 등록 및 개회
- 14:00~14:50 HIV/AIDS 임상적 특성 및 진단 (오명돈)
- 14:50~15:40 치료 원칙 및 치료 순응도 증대 방안 (최준웅)
- 15:40~16:25 항 바이러스크 종류 및 부작용 (박운수)
- 16:25~16:50 coffee break
- 16:50~17:35 기회감염 예방 및 치료 (김민자)
- 17:55~18:15 국가 에이즈 정책 (고운영)
- 17:55~18:15 의료인에서의 Postexposure prophylaxis (김양리)
- 18:15~18:35 최초 HIV/AIDS 진단 시 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 및 상담 서비스 (신수련)
- 18:35 폐회 및 만찬

■ 문의처 : 대한감염학회 김양리 교수(카톨릭대 의과대학)
(02)590-2717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유은주 과장
(02)2675-3123

